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집회 모습.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집회 모습.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집회 모습.

양심수 전원석방하라

80년대 주된 구속 사유는 「理念사건」

양심수 전원석방투쟁은 민주적 제권리 쟁취가 목적

【서울 13일 특파원 리영희 기자】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집회 모습.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집회 모습.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집회 모습.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집회 모습.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집회 모습.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집회 모습.

양심수 전원석방 및 수배조치 전면해제는 민주화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으로 양심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의 실질적 민주화가 쟁취되지 않으면 안된다

구속자 선별석방은 민주화조치 연구성 드러내

「구속자의 유형에 따른 민주화양산」

구속자 선별석방은 민주화조치 연구성 드러내. 「구속자의 유형에 따른 민주화양산」. 구속자 선별석방은 민주화조치 연구성 드러내. 「구속자의 유형에 따른 민주화양산」.

1. 「구속자의 유형」. 2. 「양심수와 시대정신」. 3. 「양심수 문제」. 4. 「결론」. 5. 「양심수 문제」. 6. 「결론」. 7. 「양심수 문제」. 8. 「결론」. 9. 「양심수 문제」. 10. 「결론」.

Advertisement for 'MY HOUSE' real estate services, including contact numbers and office locations.

Advertisement for 'DISCO THEQUE MY HOUSE' featuring music and real estate services.

Advertisement for '한국콘택트렌즈' (Korean Contact Lenses) and '한국소프트렌즈' (Korean Soft Lenses) with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河吉男 詩集' (Ha Gyeom-nam Poetry Collection) by Lee In-tae, featuring a portrait of the author.

Advertisement for '尹在天 隨筆集' (Yoon In-tae Miscellaneous Writings) by Lee In-tae, featuring a portrait of the author.

Advertisement for '박광호 저 단군조선 1,2,3' (Park Gwang-ho's Dan-gun Joseon 1, 2, 3) and other books.

前總長 金東益博士 靈前に



故 靑嵐 金東益博士님!
 비록 患中이었지만 靑嵐의 미소를 잃지 않았고 본교의 과대학의 건립 및 발전을 위하여 저와 여러가지를 議論하시고 격정하시던 일이 불과 數日前 같은데,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여 承訣의 자리를 같이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人生無常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本校 제6대 總長으로 재임하시던 69년 9

월에 古稀를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故 無涯 梁柱 東益先生은 牛耳溪谷에 遊客이 尋常하니 杏林一佛을 노상에서 칭송하고, 東岳의 五千英才는 鐵樹에 다시 꽃피울 수 있기를 願望을 獻作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시 우리들에 거쳐하심을 가지고, 無涯先生은 선생님을 天下가 주지해은 靑嵐先生의 名譽를 상기하여 「靑嵐杏林一佛」로 讚賞하고 아울러 「鐵樹再花」를 빌어 노익장의 그 파격적 정열과 일에 대한 열성을 기렸던 것입니다.
 靑嵐先生님! 그러나 인게원 불교입니까?
 최나루(鐵樹)에 다시 피었던 꽃도 이제 영원히 지시나...
 부처님 眞理대로 諸行이 無常인지만, 꽃이 지는 것을 가지고 '어찌 바람을 타하리'라는, 그러나 티없이 고운 靑

雲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總長에 就任하신 先生님께서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座右名인 天時地利, 不如人과의 화합정신으로 在任期間동안에 괄목할만한 業績들을 성취하여 佛敎立大學의 內實을 기하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셨던 것입니다.
 大學增設이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宿願이던 師範大學을 新設하였고 靑嵐大學을 개편하여 靑嵐大學으로 昇格發展시키면서 定額도 大幅增加해 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대운정장을 서술하시고 교섭하여 사용도록 하였고 中央公務員敎育院이던 오늘날의 靑嵐敎育院이었던 시 敎育에 專事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배가 68年 東國大學校로서는 學問의 發達향상과 校務를 善理하는 功績이 著할 때인 안될 때 重大한 轉換期의 狀況에 對面하고 있었

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總長에 就任하신 先生님께서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座右名인 天時地利, 不如人과의 화합정신으로 在任期間동안에 괄목할만한 業績들을 성취하여 佛敎立大學의 內實을 기하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셨던 것입니다.
 大學增設이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宿願이던 師範大學을 新設하였고 靑嵐大學을 개편하여 靑嵐大學으로 昇格發展시키면서 定額도 大幅增加해 놓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대운정장을 서술하시고 교섭하여 사용도록 하였고 中央公務員敎育院이던 오늘날의 靑嵐敎育院이었던 시 敎育에 專事하시게 되셨습니다.
 그 배가 68年 東國大學校로서는 學問의 發達향상과 校務를 善理하는 功績이 著할 때인 안될 때 重大한 轉換期의 狀況에 對面하고 있었

게 많은 佛事를 해오셨습니
 다. 그중에서도 본교와 관련된 것으로는 「東國譯經院」을 총장 취임과 동시에 재건하신 일입니다.
 故 振受스님의 뜻을 받들어 여러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譯經院을 다시 東大에서 引揚하여 職業체제를 확립하고 상당한 액수의 國庫支援를 받으셔서 오늘의 발전된 譯經院의 초석이 다져놓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故人이되신 靑嵐 金東益先生님이시여!
 老齡에 東大에 오시어 人和 靑嵐을 重寶의 인연에서 大學을 크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米壽(八十八歲)의 天壽을 누리신 다음 지금 마치도록 이 뜻을 떠나십니다. 生前에 이러한 공적들을 선생님께서 남기신 것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業績들은 끝없이 發展한 東大史의 한 부분을 영원히 차지하게 될 것이니, 그 여섯 잊을 수 없었습니까?
 靑嵐 金東益先生님!
 學校를 떠나시어 자주 빌지는 못했지만 下心으로 일관했던 보살같은 마음씨와 淡

白하신 生活, 그리고 溫和한 인품속에서도公私가 분명했던 신비의 威儀, 치밀하면서도 中庸之道를 걸으셨던 선생님의 그 모든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존경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정을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몸담으셨던 이 東國의 學風속에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靈駕시여! 떠나시는 길에 이를 기뻐하시고 平素 아끼셨던 因緣 깊은 三寶의 功德, 東國을 굽어 살피시기 바랍니다.
 釋尊萬像이 此處遍那의 全身이요 諸佛이 阿彌陀佛의 寶蓋인대 靑嵐靈柩는 어느 곳으로 가십니까, 現像과 本體가 같이 아니고, 生死가 如如하니 太古以來, 往來 또 한 如如한 그 자리입니다. 靑嵐靈柩시여! 늘 말씀하시던 本願을 成就하시어 杏林一佛로 法界에 自在하시고 다시 靑嵐先生하시어!
 佛紀二千五百二十一年九月五日
 故靑嵐 金東益博士 東國大學 葬儀委員會 總長 李智冠 謹弔

慶州 총대의원회의장 장찬君

『당연히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혜택입니다.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리기 보다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더 큰 권익을 위해 앞장서는 총대의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본교생들에게 부속 한방병원에서만 의료비할인이 된 것인데 이번이 시내 일원의 8개병원에서도 30%의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 慶州 캠퍼스 총대의원회장 장찬(국문·33)君은 말했다.』
 학기초에는 회의개최 때마다 정족수 부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과 구태의연한 행사로 일관해온 면도 10년째 걸리는 경우 캠퍼스도 이전 모듬에서 정화 발전해야 할 단계가 아니겠느냐며 『각학과 학년 대표를 구성한 총대의원회는 총화생회의 견제기구인 동시에 가장 친숙한 학생자치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본회의 모듬을 강조한다.
 서울캠퍼스와의 인제간조성에 대해서는 『東國大學校가 모태라면 서울경주캠퍼스는 모태를 같이한 양대대들이 아니겠습니까?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는 서울캠퍼스 행정의 명목적인 수고를 거부하고 고립된 지역성 극복을 통한 과감한 개혁과 시도가 필요하며 동국인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쓰는 공감대가 중요한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라고 대담한 신념을 나타내며 『자주·진리·실천』의 캐치프레이즈에 어울리는 東國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 본다.』
 <정성기 記者>

문제時代 문제作家

이성복에 있어서의 <님>은 <그대, 그, 당신> 등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만해 등의 <님>은 절제자, 조국, 연인의 등의 모습이었으나, 이성복의 <님>은 <자연>, <어머니>의 모습이나, <예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듯하다. 이러한 이성복의 <님>을 이해하지 못한 이성복의 시는 때때로 공허하게 일어난다.
 또한 이성복의 시에는 산업화의 일면의 과정을 거치면서 파괴되어가는 현실의 부패한 단면도와 그로 인한 아픔의 몸짓이 드러나 있다. 그것은 때때로 <연해적>이고 <독특적인 발상>

母性の 파괴, 母性の 부활

진다. 누이는 순수성을 잃어 버린 현대의 모습이다. 살기 위해 발바닥까지 힘겨운 노동에 지친, 그리하여 <순수한 노동>에 유혹되는 우리들 자식이다. 이성복에 있어서 어머니는 가장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머니는 화자가 몰랐던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그것은 때때로 <연해적>이고 <독특적인 발상>

◇글쓰는차례

1. 머리말
2. 이화서론
3. 이성복론
4. 최승자론
5. 황지우론
6. 김경환론
7. 김용택론
8. 연재를 마치며(좌담)

지역성 극복 통한 과감한 개혁 필요 시계탐·야의 휴게실 학기내 설치

『이화서론』을 통해 이성복의 시를 분석하고, 최승자, 황지우, 김경환, 김용택의 시를 소개하며, 연재를 마치며(좌담)를 소개한다.

이성복

◇출생: 1952년 경북상주 생
 ◇서울대 인문대학
 ◇1977년 「문학이론」으로
 등단
 ◇현재: 靑嵐대 재직중

그의 시세계는 산업화의 파정을 통해 파괴되는 현실의 부패한 단면도와 그로 인한 아픔의 몸짓이 드러나 있다

이성복의 작품세계를 몇 가지로 규정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복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저기발달한 상상력>을 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성복은 근래의 어느 시인보다도 그 상상의 보폭이 크며, 그 간극을 <발발적으로>의 부드러움을 유지함으로써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성복이 보여주는 <시적 형태의 파괴>는 전통적 시적 형태를 유지하는 최승자와 차이를 두며, 심미적 유희 <일회성>에 그치고 마는 황지우, 박남철과도 꺾을 달린다. 김수영, 오규환 등으로 이어지는 <인상적 표현의 파괴> 또는 <인상어의 시적 도입>이 이성복과 황지우에 이르러 두 개의 커다란 갈래로 분화되는 것이다.
 또 이성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해, 소월, 상하를 통해 귀에 익은 <님>의 문제도 열거해야 한다. 만해의 <님>은 과거와 미래, 소월의 <님>은 과거에, 상하의 <님>은 미래에 존재하는 <님>이다. 이성복의 <님>은 어떠한 <님>인가.

과파된 기준질서는 주로 가족관계의 붕괴가 중심이며 시에서는 가족간의 따스한 사랑이 존재치 않는다

『아직도 뜨거운 땀방 아래 수건으로 머리 뽀니고』가 평범처럼 가파른 계단을 오르려는 어머니...
 『어머니, 촛불과 안개꽃 사이로 올라오는 온갖 하소연을 한쪽 귀로 흘리시면서, 오늘도 화장지 행상에 거친 아들의 손발에, 가슴에 깊이 박힌 뜻을 뽀니는 어머니...』
 <어머니·1> 일부

東國漫評

이성복이 회복하고자 하는 모듬은 『미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상실되어가는 것』로서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성복이 <당신>은 내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정성기 記者>

코카·콜라 1병 무료증정!

기간: 1차 ◆9월1일-9월15일 2차 ◆9월17일-9월30일

삼바 작은병 1병을 사시면 '럼·코크'를 즐길 수 있는 코카·콜라를 무료로 드립니다.

럼·코크(RUM & COKE)
 ●삼바 45ml
 ●콜라 55ml
 1) 하이볼 그라스에 얼음을 2-3개 넣고 럼을 따르후 콜라를 채운다.
 2) 레몬이나 라임조각으로 장식한다.

삼바 25
 젊음의 리듬, 젊음의 감각 - 삼바
 부담없는 가격 - 삼바는 맛있는 젊음이 선택한 양주입니다.
 ※ 가까운 수퍼마켓이나 연세점에서 구입하세요.

어로니

오 함 <42>



불경과 성경

윤정광
한때 MB C-TV 오 발판 작가였던 윤정광은 이 책을 통해서 신앙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이 참된 사랑의 회복과 성숙을 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비신자들이라도 이 책을 통해 신앙의 비결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성경과 불경의 비교를 통해 두 종교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한국출판사 306면·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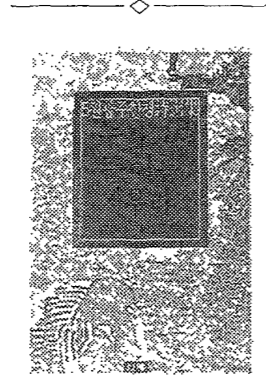
방법에의 도전

올레이언트
도서출판 한겨레가 열아홉 번째의 비평서적 『방법에의 도전』을 펴냈다. 작자는 기존의 과학철학, 기존의 과학사에 대해 지금까지 제시된 과학에 대한 합리적 모델은 과학사이에 서 드러난 과학의 실제적 모습과는 들어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으며, 그러한 그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한겨레 394면·4천8백원>

흥사남

노병석
작가 노병석은 이 소설에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정신적 위기를 겪고 있는 주인공이 혼란스러운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부수적 인물과 사건을 통해 그 인생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문예 349면 3천5백원>

이달의 시



80년대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이즈음 그동안 무성하게 논의되던 「시의 시대」라는 말을 생각해 본다. 80년 5월의 경강철벽에서 바위틈새의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 시는 관념적 구호주의의 시와는 정반대 부정의 시를 아우르며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시대의 유행이었는가? 혹은 어쩔 수 없이 모두가 부대껴 간 압축인가? 아닐 것이다. 80년 5월은 누구에게도 면제될 수 없는 절곡이다. 그것은 정면으로 돌파되어야 한다. 피안에 응당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는 한 그것은 괴물로 남아 있는 것이다.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라는 광주항쟁 시선집이 오늘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대 이 시절에 은음으로 죽

누가 그대 큰 이름 지우랴

다시 살아 때때로 사이 강을 처럼 넘치는 원한의 기를 위에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대는 불이다
살아생전 천 길 낭떠러지 우수수 희오리바람 앞에
꽃잎이 맞서고,
지푸름이 수를 들자갈 깊은 잠을 흔들어 깨우는
그대는 불이다
갑자기 밀리는 울창한 발자국 소리,
아수성 속에서, 비명 속에서, 장막처럼 하늘을 가리우는 때
은 연가 속에서,
피리바다 속에서 그대 소리치며 스스로 그대 이름을 던졌으니,
그대 떠난 아득한 길
손뼉치며 떠나리라 손뼉치며 떠나리라
—양성우작, 「박관현」 전편—
80여명의 204권의 시를 모은 시집의 표제로 쓰였을지언 「박관현」이란 시를 읽어보면 우리는 「관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집은 하나의 형틀이다. 한 순간의 여유도 주지 않고 우리를 다그치면서 일어서라 외치는 죽은 자들의 함성이 1부를 이루고 있는 광주항쟁의 민족사적 자리매김을 겨냥한 시나 2부의 그날 그현황의 증

「光州의 5월은 누구에게도 면제될 수 없는 절곡이다」 광주의 의미와 백병전을 벌인 80년대 시인들의 전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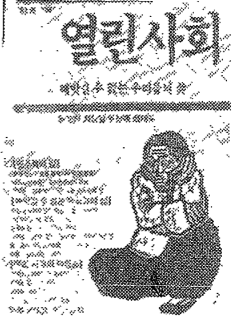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간 뒤엔 3부의 만일동 주변에 얽힌 시 4부의 추모시들은 모두 광주의 의미와 백병전을 벌인 80년대 일꾼의 시인들의 전적비라 하겠다.
또한 5부의 시를 보면 80년대 이후 등장한 젊은시인들의 「5월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라는 문체와 함께 어울어진 풍부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시집은 처음 읽는 순간부터 자유롭지 않은 시집이며 「고통을 주는 시집」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문학적 수사를

빼앗길수 없는 우리들의 삶

80년대 초 대학언론의 한 걸음 걸으며 활약한 한실보고에 올바른 붓놀림을 위해 헌신했던 윤석진(前의 대학보편집장)은 비롯한 4명의 전대학자들이 단행본 「열린사회」 제1권으로 「빼앗길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도서출판 「열린책들」)의 제목의 글모음을 내놓았다.
총 3부로 나누어 「정직한 기록」을 수록하고 있는 이 책은 특히 제1부 「민주화의 길」에서 우리들 기억에 어려움 그늘 지어졌던 사건인 이른바 「김재사태」의 생생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엮은 「우리들



은 발견이 아닙니다」라는 다우렌타리가 주목을 끈다.
이외에도 자유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산물인 「인간애」에 대한 위대한 공명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한편의 시집이다.
강형철
<시인·문학평론가>
우리가 채질하여 언어로 정착시켜 놓지 않으면 세월의 바람속에서 날아가 버릴 이야기들을 힘차게 날려 보내는 데까지 확실히 날려 보자는 것이었다.



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현장의 모습들을 「인부수첩」 등으로 표현한 이가(前(민연협) 사무국장 성유보)와의 일문일답으로 언론 자유의 장애요인 제거의 실천적 구상과 언론기관 「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실었다.
끝으로 인문사회과학 서적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논경」 서점 주인 박완성 씨 <인사문(인문사회과학서적상회) 회장>의 활동상을 보고형식으로 수록해 놓았다.
한편,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의 발간한 자료집 중에서 지난 80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주요 사건을 발해, 재야·종교·학생·인권분야 등으로 정리한 것을 부록으로 알리는 정보도 읽는 이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문화부>

「돈내지 맙시다」 공연을 보고

서양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 상황을 설정하여 새로운 각도로 우리 실정에 알맞게 승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리적이라는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다.
연극 「돈내지 맙시다」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정권 몰락 이후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변

「저편에서」 공연

오는 11일부터 연주소극장서 극단 연우무대는 「저편에서」라는 새 공연에 이어 흥성일 구과 도시지향적 국가정책으로 25일까지 연주소극장(해동동)을 무대에 올린다. 공연시간은 하오 3시, 5시, 7시로 하루 3회 공연.
「전통사상」 강좌
오는 11월 24일까지 경원빌딩 강당서 사단법인 한겨레에서는 올 하반기 「한국전통사상」 강좌를 개설

「돈내지 맙시다」 공연을 보고

화를 창조적으로 반영한 권위주의적 관료체제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 임금으로 인해 최저생계 유지에서조차 소외되고 착취 당하고 있는 노동자 자신의 존엄성과 자유를 대변해 주는 내용 연극이다.
70년대 이탈리아의 주목할 만한 현상을 극화시킨 이 연극은 거꾸로 절망과 행방에 대한 불복종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빈민가의 젊은 아내네들이 슈퍼마켓에서 돈을 내지 않고 음식들을 집어오는 것을 시작으로 경찰의 추적과 가짜 수색을 받자 음식들을 감추기 위해 경찰과 빈민가 사람들간에 벌어지는 갖가지 소동을 통해 현 체제에 대한 항단이다.
경찰관과 두 부부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매우 연속적이며 이

「저편에서」 공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이용한 놀이관형식의 방법은 한국적인 맛을 많이 풍기게 하였고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점은 연출의 큰 성과라 하겠다.
이 극을 이끌어간 두 부부가 중심이 되는 연기는 아주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를 근근히 냄새를 잘 전해 주었다.
진정한 대중 연극의 바탕에서 삶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억눌린 자들의 울분을 알차게 터뜨려 주기 위해서는 정치적 참여에서 그칠 게 아니라 인간답게 삶을 갈구하는 사회, 경제적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이들의 자유는 실현될 것이다.
「죽은 날에는 지쳐 빠진 늑은 뱀나기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다가 인간답게,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죽는 것」이라는 이들의 마지막 대사는 이극을 보러 찾아온 관객과 같이 하 나의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끔 느껴진다.
조 천 현 <동대대 불경과>

참신한 문예림의 노크를 하세요

◇모집분야
△시 · 詩 (15매내외)
△詩 · 時 調 (4편) · 影 演, 연극평 (7매내외)
△수필 · 廣 告 (10매내외)
<문 화 부>

「저편에서」 공연

오는 11월 24일까지 총 12주 주간 「한민족의 정신적 뿌리」 등 10여개의 강좌를 경원빌딩 4층 강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수강신청 접수는 한겨레 사무국 (전화 738-6198) 에서 받는다.

「저편에서」 공연

이외, 관계적으로 교수재판관으로 여겨진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충분한 실력을 갖지 못한, 교수회의에서의 문제제기, 발전정책, 교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실들을 설명해 내기에는 논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조사에서 밝혀진 증거들로 보아 부장유출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21세기를 향한 창조와 도전의 세계

대우테크놀로지

21세기를 향한 창조와 도전의 세계, 대우테크놀로지 — 대우테크놀로지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대우인의 의지와 집념으로 펼쳐나가는 새로운 첨단기술의 세계입니다. 정보화시대를 여는 뉴미디어기술은 물론 로보트, 레이저,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복합기술이 하나로 결합되어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대우테크놀로지 — 대우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적극적인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로보트산업**
국내최초로 다목적 산업용 로보트 NOVA 10을 자체개발한 대우는 고도의 이동 및 센싱기능, 저음을 갖춘 다양한 로보트의 연구개발을 통해 인간의 힘든 일을 대신하는 로보트 시대의 자동화기술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 신소재산업**
꿈의 소재인 탄소 섬유를 국내 최초로 생산하는 대우는 첨단 미래 산업의 필수 소재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세라믹, 바이오 소재들을 현실화시켜 신소재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통신산업**
대우는 MODEL-D 컴퓨터 수중, TDX-1 전자회로기 수중, 광통신 섬유화, 주분원 반도체생산 등 통신분야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정보통신망(ISDN)의 실현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 전자산업**
대우는 세계 제1번으로 최첨단방식 디지털 컬러 TV의 개발 등 뉴미디어를 개발하여 가정자동화(HA)를 추진함으로써 보다 편리한 인간생활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계와 함께 미래를 함께 —
대우가족